가나(仮名)가 혼재된 구어초(口語抄)
『쇼우요테키(蕉雨余滴)』의 성립에 관하여
-도겐 즈이센(桃源瑞仙)의 학문관과 수행관을 중심으로

CUI XUEPING (도호쿠대학)

문제 제기

무로마치 중기의 임제종 승려인 도겐 즈이센(桃源瑞仙, 1430~1489)은 오닌의 난으로 말미암은 전란을 피해 오미국(近江國)의 산에 들어가 동파시(東坡詩)에 대한 모든 지식을 선승(禪僧)과 조정 관리들에게 가르쳤다. 후학인 잇칸 지코(一韓智翃)가 그의 강의를 기록한 것이 바로『잇칸쵸쇼(一韓聽書)』다. 또한, 도겐의 호가 쇼우(蕉雨)였기 때문에 『잇칸쵸쇼』는 『쇼우요테키(蕉雨余滴)』라고도 불렸다. 이 동파시초(東坡詩抄)는 단독으로 한 권의 책으로 엮여 있지 않고 『자세츠(脞說)』, 『텐카하쿠(天下白)』, 『칸엔이호(翰苑遺芳)』와 함께 쇼운 세이잔(笑雲淸三)이 편찬한 『시카닛카이(四河入海)』에 수록되어 있다[1]. 그런데 이 세 편의 동파시초는 거의 다 한문으로 쓰여진 것과 달리, 도겐의 초물(抄物)은 가나가 섞인 구어초(口語抄)[2] 형식으로 쓰였다.

무로마치 시대의 고잔파(五山派) 초물에 관한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다마무라 다케지(1976)는 해당 시기에 초물의 작성 및 강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이유에 대해, 사륙문(四六文) 을 짓기 위해 지식을 폭넓게 배웠다는 관점으로 분석했다. 이후 호리카와 다카시(2011)는 초물을 지식을 얻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중국 문인들의 주석서(注釋書)나 유서(類書)·역사서 등에 기반해 선승들이 작성한 초물에 선종의 요소는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지적했다[3]. 이어 디디에 다운(2020)은 시문 창작 따위의 문인활동 이외에, 문학활동과 선(禪)의 수행은 두 갈래로 나뉘어 별개로 이루어졌다고 고찰했다. 즉, 기존 연구에서는 한문초와 구어초 모두 방대한 지식의 집성이자,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 인정받고 있다[4].

그러나, 양자가 같은 역할을 수행했다면 도겐을 비롯한 선승들 사이에서 유행한 구어초는 그저 단어의 변화에 그쳤다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전거 인용의 편의성과 초물이 한시문 창작의 소재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문초는 구어초보다 더 유용하지 않았을까? 따라서 본 발표에서는 한시문초인 『쇼우요테키』를 연구 대상으로 삼아, 도겐의 학문관과 수행관(불도의 수행)을 중심으로 보다 사상적인 측면에서 『쇼우요테키』를 비롯한 한시문 구어초가 당시 성립했던 의의를 고찰하고자 한다.

1. 도겐의 학문관

중세 선종의 시문 창작 양식에서 볼 때, 선승들이 적극적으로 한적(漢籍) 강의를 듣고 배운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시문의 소재로 이용한 것은 당연하다. 그럼 이러한 상황에서, 도겐은 폭넓은 지식 습득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의 『시키쇼(史記抄)』에는

---

1) 中田祝夫『四河入海〈12〉·題解』(抄物大系〈別卷〉) (勉誠社、1972年) 1090頁
2) 도겐의 구어초는 구어초 주석서에 기반해 편찬된 『햐쿠노오(百衲襖)』, 『헤키간로쿠쇼(碧巖錄抄)』뿐 아니라『쇼우요테키(蕉雨余滴)』(동파시), 『쵸츄코(帳中香)』(황정견시), 『산타이시쇼(三体詩抄)』 등도 구어초 형태로 편찬되었다. 야나기타 세이지(2013)는 문헌자료를 상세히 조사해, 그 문체가 도겐 시절에 그를 비롯한 고잔파 선승들 사이에서 'ゾ체', 즉 '~ゾ'로 문장이 끝나는 형태가 고정화·일반화됐다고 서술하고 있다. (柳田征司『抄物、廣大な沃野』 (武藏野書院、2013) 69頁)
3) 堀川貴司『五山文學の硏究』 (笠間書院、2011年) 165頁
4) ディディエ·ダヴェン『無門關の出世双六—歸化したその聖典』 (平凡社、2020年) 49—50頁

대체로 <지(志)>가 박식한 자는 저술에 능하지 못하고, <심(心)>으로써 저술하는 자는 재능이 부족하다. 이것이 일반적인 고금의 상론이다. 즉, 동시에 큰 두 가지 재능을 가질 수는 없으며, 학문을 행하는 자는 이를 모를 리 없다. 사람들은 많은 책을 읽어 지식을 취하려 하나, 오히려 말의 풍취를 잃고 말았다. 모름지기 시란 평온을 갖추기만 하여도 충분하거늘, 어찌하여 다들 절묘한 시만 쓰고자 하는 것인가? 박식만을 추구하는 행태를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5)]

라고 쓰여 있다. 그 당시 선종에서는 다이친오(大椿翁)와 그의 사형제(師兄弟)인 코신센(江心川)이 육경(六經)에서 제사(諸史)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의 지식을 익힌 것에 대해 높이 평가되고 있었으나, 도겐은 지식에 대한 자신의 견해에 따라, 박식을 무조건적으로 숭상하는 풍조를 비판했다. 그 두 사람은 소위 말하는 지식인이었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의 시 가운데 선종에서 내로라할 시는 한 편도 없었다. 그 이유로써 도겐은 당시 선승들이 '본심'에서 멀어져 시문의 풍취를 무시하고 박식만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즉, 오로지 박식만을 추구하는 것과 도겐이 주장했던 '마음이 담긴' 시문 창작은 모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모순적인 상황을 타개하고 '마음'과 박식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도겐은 "모름지기 학자는 육경과 삼사(三史)를 몸통으로, 제자백가(諸子百家)를 날개로 삼아야 한다. 그리함으로써 처음 접하는 책을 읽더라도 이해하지 못할 것은 없다."[6)]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고전에서는 특히 주역(周易)의 학습을 강조한다. 이마이즈미 요시오의 『도겐 즈이센 연보』에 따르면, 도겐은 25세 즈음부터 주역 연구에 몰두하여, 오랜 세월 동안 이를 탐구한 끝에 『햐쿠노오(百衲襖)』라는 초물을 편찬했다[7)]. 그렇다면 도겐이 이야기하는 '마음'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며, 선승들은 어떻게 시와 마음의 융합을 이루었을까?

2. 도겐의 수행관

도겐은 『햐쿠노오』에서 선(禪)과 주역의 공통성에 기반해 '마음'에 대해 세 가지 단계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1단계~2단계에 걸쳐서는 '만물은 아무것도 없는 곳(혼돈)으로부터 파생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버드나무가 푸르고 꽃이 붉게 물들고, 백조, 흑조 등의 만물이 항상 누군가의 구애도 없이 자유로이 지내는 것이 확실하게 보인다'. 그리고 선의 깨달음의 경지에서 말하자면, 우리는 선악과 시비 등이 존재하는 '분별심(번뇌)'에서 멀어지고자 한다면, 혼돈과 같은 '무분별'의 마음으로 돌아가야만 한다. 이는 인간이 본래 가지고 있는 '청정불성(淸淨仏性)'이며, 그 마음의 경지는 선종에서 말하는 '본지풍광(本地風光)' 혹은 '본래면목(本來面目)'(본심)이라고 한다.

그다음에는 자신의 '청정불성'을 깨달은 뒤 그 '무분별'에도 집착하지 않고 이전에는 부정했던 수많은 '분별'들을 있는 그대로 긍정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2단계~3단계에 걸쳐서는, 혼돈으로부터 탄생한 만상은 이슬 내리는 가을이 지나고 서리 내리는 겨울이 도래하듯, 계절이 변화하는 규율에 따라 자연히 변화한다. 선의 관점에서 보자면, 괴로움과 즐거움, 순경(順境)과 역경과 같은 모든 일상과 눈앞의 풍경에는 원래 '길(道)'이 지나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 일상과 자연 이외의 세계에서 길을 찾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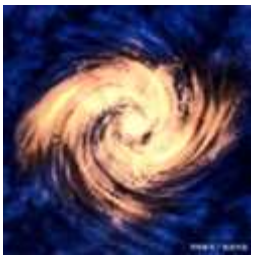
---

5) 京都大學図書館藏『史記抄』寬永三刊.원문은「大抵率志在博識者、拙於著述。心在著述者 其才淺矣。蓋古今之常也、物不兩大之謂歟。爲學之徒不可不知矣、夫人雖究群書而語無風韻。胡爲若哦一絶之詩、略覺平安則足矣。不必博宏爲得也。可不戒哉」이다.

6) 위와 동일. 원문은 「凡言學者、六経三史爲体、諸子百家爲翼。因以見所未見之書、無不通者也」이다.

7) 今泉淑夫『桃源瑞仙年譜』 (二) 東京大學資料編纂所、1986

즉, 분별심(번뇌)에서 벗어나 무분별의 마음으로, 또 무분별에서 '무분별의 분별' 상태로 들어가는 것, 다시 말해 분별을 끊어낸 '견성(見性)'의 단계를 초월하여 '평상심시도(平常心是道)'[8]의 경지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이는 주역과 같기 때문에 주역의 원리를 체득하면 선의 수행은 앞서 언급한 3단계를 거친다는 것을 자연히 알게 된다. 그리고 최고 단계(평상심시도)에서는, 자연현상에서 일상생활에 이르는 모든 사물이 '도(道)'를 품고 있기 때문에 일상·자연 그대로의 도를 깨달을 수 있다. 그렇기에 시문을 씀에 있어서도, 그 주석서를 씀에 있어서도 '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② ← ①
→③

주역 : 혼돈

복희(伏羲)의 팔괘

선종	주역
①분별(자타(自他), 괴로움·즐거움, 순경·역경)	만사만물의 세계
↓	↓
②무분별(자타일체, '본래의 마음')	혼돈
↓	↓
③무분별의 분별(평상심시도)	만사만물의 세계
무분별에 집착하지 않음	태극(혼돈)→양의(兩儀)→사상(四象)
일상을 유지한 채 도를 깨달을 수 있음	(금목수화→팔괘→만사만물)
일상을 유지한 채 도를 깨달을 수 있음	

3. 도겐의 강의와 도(道)

이러한 분석 결과에 기반하여, 다음으로는 시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소식(蘇軾)의 시 『과대유령(過大庾嶺)』(대유령을 지나다)에 대해, 도겐이 쓴 주석에서는 아래와 같이 언급되고 있다. '일념이 더러움을 지워내니, 심신이 맑고 고요해진다. 호연한 천지 사이에 오로지 나만이 정직하다. 오늘 산봉우리를 떠나면 평생 나의 신세를 잊지 못할 것이다. 선인이 나의 정수리를 쓰다듬더니 머리를 묶고 장생의 비밀을 알려주었다'[9]. 이 시에 대해 도겐은

> 부처를 축토대선(竺土大仙)이라 한다. 부처가 와서 머리를 쓰다듬는 것과 같이 과거의 천불(千佛) 또한 이렇게 대대로 도(道)를 전수해 왔다. 즉, 부처가 머리를 쓰다듬는 것은 득도함을 증명한다는 뜻이다. 이 득도를 증명하는 선인이 등장한다. 장생이란 과거의 오랜 세월에서부터 헤아릴 수 없는 먼 미래에 이르기까지 불생불멸의 진리를 전수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견해에서 보자면, 선인의 조사(祖師)는 나(소식)를 자손처럼 여기고 있기 때문에 머리를 올려 묶어줌으로써 장생을 나에게 전수해주었다고 이해해야 할 것이다. 소식은 항상 재상을 벌레와 같은 자들이라고 생각한 한편, 자신은 득도한 자로서, 천지 사이에 '자신이 가장 뛰어난

8) 伊吹敦『中國禪思想史』 (禪文化硏究所、2021) 246-247頁
9) 國立國會図書館藏『四河入海』第三冊、45頁. 원문은「一念失垢汙、身心洞淸淨。 浩然天地間、惟我獨也正。今日嶺上行、身世永相忘。 仙人拊我頂、結髮受長生」이다.

유일한 사람'이며 불생불멸의 진리를 이미 깨우쳤다고 여겼던 것이다.[10]

(サテコソ、佛ヲハ竺天大仙ト云ソ。佛カ來テ頂ヲナツルト云タト同コトソ。過去の千佛カ相傳メ。証明スルカコトキソ。此得道ノ証明仙人カ出テスルソ。長生ト云ハ過去廣大劫ヨリ至盡未來際の不生不滅の理を示授ルソ。仙人の祖師カ我レヲハ兒ノヤウナルカ。此ノ見解を具シタト云テ、髮ヲトリアケテ縛テ授長生ソ。イツモ坡カ心ハ得時を宰相三公トナルヲハ螻蟻蚊虻ト見ソ。我レハ得道メ。唯我獨尊テ不生不滅アルト云ソ。)

라고 설명하고 있다. 축토(竺土)는 인도, 대선(大仙)은 위대한 선인이라는 뜻으로 석가모니를 가리킨다. 소동파는 아주 오랜 옛날부터 아주 먼 미래까지의 불생불멸(不生不滅)의 진리를 전수받았기 때문에 '불도(佛道)'를 얻은 자라 불렀다. 반면 쇼운 세이잔은 '선인이…'라는 부분은 원래 이백의 시구에서 따온 것이기에 삼교일치(三敎一致)의 관점에서 시구의 의미를 설명해야 하는데, 도겐의 해석은 훌륭하지만 도가사상과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이 아쉽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도겐이 당시의 상황을 고려해 '도(道)'를 언급했다는 점에서 미루어 볼 때, 자신의 강의에 의식적으로 도에 대한 이해를 포함하고자 했던 의도는 충분히 알 수 있다. 또한 『쇼유요테키』에서도 소식은 득도한 자이며, '불법의 정맥(佛法正脈)'과 같다고 수차례나 언급했다.

4. 가나가 혼재된 구어초의 성립

이상의 내용을 통해, 도겐의 수행관과 강의의 경향에서 '도(道)'를 중시함을 알 수 있었는데, 그에게는 아직 두 가지 문제가 남아있었다. 하나는 『햐쿠노오』에서 지적했듯, '중춘이 되어 조금 따뜻해졌다. 오늘 아침부터 다시 어고(魚鼓)를 치고 좌선했다. 장원(莊園)의 흉작은 걱정거리가 아니나, <개에게 불성(佛性)이 있습니까>라는 물음에 대해 무(無)를 체득한 자가 한 명도 없는 것이 걱정이다.'[11]와 같은 상황이었다. 옛사람들은 천성이 영리하여 팔괘의 상(象)을 통해 도를 습득할 수 있었지만, 선승들은 오로지 시문 창작에 빠져 불도 수양의 소질이 부족했기 때문에 도를 깨우치기가 매우 어려워진 것이다. 다른 하나로는, 글로써 주석서를 지어 도를 습득하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도겐은 말했다.

따라서, 물음을 통해 선승들에게 '도(道)'를 체험하도록 하는 것보다 그들이 몰두해 있는 문학활동을 통해 도를 전달하는 편이 더 용이했다. 또한 '도'라는 추상적인 개념에 대해, <책>(문장어)에는 기록하지 않는 것들을 <말>(구어)로는 전할 수 있기에, 도를 전하기에는 문장어보다 구어가 더 좋은 방식이었다. 도겐 자신도, 참선하는 자이든 유학자이든, 성인(聖人)의 경전을 전달할 때 말보다 뛰어난 것은 없다고 지적했다.

마치며

오닌의 난 이후 불법(佛法)의 쇠퇴는 피할 수 없었으나, 도겐을 비롯한 선승들은 부처의 '도(道)를 전하기 위해 힘쓴왔다. 따라서, 구어초가 도겐 시대에 고잔파 선종에서 확립되었던 이면에는, 단순히 문체나 단어의 변화뿐 아니라 중세의 지적 세계에서 불교 수행의 세계로 복귀하고자 했던 의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번역책임자:양남윤)

---

10) 國立國會図書館藏『四河入海』第三冊、45頁

11) 京都大學図書館藏『百衲襖 · 十七卷』 (室町期) . 원문은「仲春稍溫、自今朝又打板坐禪、而不憂莊園之不登、而憂無一人參得個狗無話焉」이다.